

# 하나님께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8-14

2022년 3월 13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 소개

오늘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의 질문 11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 11문: 하나님께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우리는 이웃을 상하게 하지도 미워하지도 아니하며 적대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래 참고 평화롭게 하여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쫓으라.

일곱째, 우리는 음행을 멀리하고, 결혼 생활을 하든 독신 생활을 하든, 모든 불순한 행동, 외모, 말, 생각 또는 욕망과 그것에 이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으며,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선익도 보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3:8-14

- 8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9 계명에 이르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계명과 다른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 10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11 이보다 더 급한 것은 너희가 지금 얼마나 늦은 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깨어나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 12 밤이 거의 가니 구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옷과 같이 어두운 행실을 벗고 바른 생활의 빛나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 13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음란한 파티와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음란한 생활과 다투고 투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 14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사악한 욕망에 빠져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보내어 저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에 열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Point 1.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8-10절)

Point 2.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와 '이것을 하라'가 있다(12-14절)

## **Point 1.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8-10절)**

십계명은 읽을 때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New City Catechism 질문은 6, 7, 8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진술이 혼란스럽습니까? 설

마.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훨씬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진술을 처음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3:8-10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8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아니하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빚질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리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리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많은 질문을 낳을 만큼 충분히 복잡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느님의 율법 전문가가 예수께 그 질문을 던졌을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대담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두신 궁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말함으로써 8절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로마서 13장 9-10절을 다시 봅시다.

“9 계명에 이르기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탐내지 말라.” 이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함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 7, 6, 8, 10절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네 이웃의 재산도 존중하게 되리라. 당신은 그에게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자신의 소유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행위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마음의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습니까? 이 사악한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하려면 병사들의 몸과 마음과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군인은 달리고 점프하고 싸울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지도를 읽고, 장비를 사용하고, 전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유대인들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일으키기 위해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적임을 확신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려면 먼저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적에게 항상 경멸적인 이름을 붙인다. 미군은 독일인을 ”크라우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인을 “ragheads”라고 불렀고 아시아인을 “gooks” 또는 “slant eye”라고 불렀습니다.

르완다 대학살 당시 사람들은 서로를 ‘바퀴벌레’, ‘쥐’, ‘뱀’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글자를 새기고 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죽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먼저 그들을 비인간화해야 합니다.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병사들이 바퀴벌레를 죽이기 쉽도록 사람을 불려야 합니다.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마약 중독자와 네오나치의 깡단”으로 묘사한 이유입니다. 푸틴의 언어 선택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일 러시아 군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푸틴은 그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적이라고 믿길 원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자기 방어라고 말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들어 보십시오.

“10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함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분노, 정욕, 탐욕이 있으면 살인, 간음,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악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인과 간음과 절도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정욕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합니다. 간단합니다. 죄는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죄는 내 이웃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법이 방해가 된다면 무시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죄와 악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잘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못이 아니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손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죽음과 부활에는 많은 중요한 신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전하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없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들 하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에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왕국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는 왕국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 Point 2. 하나님의 계명에는 '저것을 하지 말라'와 '이를 하라'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로마서 13:12-14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 밤이 가까웠으니 구원의 날이 속히 오리니 그러므로 너희 어두운 행실을 더러운 옷 같이 벗고 바른 생활의 빛나는 갑옷을 입으라.

13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음란한 파티와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음란한 생활과 다투고 투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14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악한 욕망에 방종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죄를 피하는 방법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와 멀리 떨어진 섬에 혼자 있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지. 섬에 그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남과 멀리 떨어진 섬에 나 혼자라면 누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없다. 내가 이웃을 갖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12b절에서 "더러운 옷 같이 너희 어두움을 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올바른 생활의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Douglas Moo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직하고 일관된 관심으로 모든 종류의 행동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순종은 죄를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순종은 선행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은 "나는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웃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축복하고 관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 중 하나는 에베소서 2:4-5에 있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5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극단히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은 완전한 삶을 살고 희생적인 죽음을 죽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도록 그분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와 같은 죄로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좋은 정의입니다. “은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입니다. 은혜는 얻을 수도, 받을 자격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단어인 그레이시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David Anderson 박사가 발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 소프트웨어에서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One Voice Fellowship과 같은 다문화 교회인 메릴랜드의 Bridgeway Community Church의 목사입니다. Anderson 박사는 GRACISM이라는 훌륭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Gracism”은 은혜와 인종 차별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인종 차별주의는 “피부색, 계급 또는 문화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다른 사람의 피부색이나 문화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모욕하거나 상처를 줍니다. 그레이시즘은 반대입니다. Gracism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Anderson 박사는 “인종차별주의는 인종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하여 다르거나, 주변에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과 ‘추가 은총’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룹은 모든 피부색, 문화 또는 성별이 될 수 있습니다.” Anderson 박사에게 따르면 그레이시즘에는 7가지 긍정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1. 내가 당신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2. 내가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3. 나는 당신과 공유 할 것입니다.
4.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5. 나는 당신과 함께 서있을 것입니다.

- 6. 나는 당신을 고려할 것입니다.
- 7. 나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일곱 가지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 음란한 파티와 술 취함과 음란함과 음란한 생활과 다툼과 투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14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웃을 입으십시오.”

친구 여러분, 저는 1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영적으로 용서받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13절에 묘사된 행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닙니다. 내 행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과 수치를 가져다줍니다. 버려야 할 부정적인 행동도 있고, 버려야 할 긍정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웃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앞서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행동과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명명하는지 들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4~7

- “4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5 또는 무례한. 그것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 7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나오미와 결혼한 첫 해에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결혼은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웃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벗어나고 아내와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임재로 어떻게 웃을 입으실 것입니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지만 마음은 종종 분노와 욕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웃보다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과 즐거움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은 그것과 너무 다릅니다. 천국의 안락함과 안전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원수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적극적인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입도록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